

보도자료

2020년 12월 23일(수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전파관리실 검사기획팀 팀장 이종수 (061) 350-1571
배포: 운영지원단 총무홍보팀 사원 최혜인 (061) 350-1325

KCA - KESCO,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파·전기 안전점검 실시

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'KCA')은 지난 28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파·전기 안전점검을 3차례* 실시했다고 밝혔다.
 - * 전남대병원(16일), 충북대병원(22일), 목포한국병원(28일)
- 전파·전기 안전점검은 KCA와 한국전기안전공사(사장 조성완, 이하 'KESCO')가 함께 의료센터 내 무선설비 점검, 전자과강도 측정, 전기설비 점검을 하는 서비스이다.
- KCA는 ▲응급의료용 무선설비 점검 ▲의료센터 내 전자과환경 측정 ▲소형 전자과 모니터링장비를 설치하였으며, KESCO는 ▲비상용 발전설비 점검 ▲무부하 운전시험(발열, 전압 등) ▲절환개폐기 점검(정전 시 자동절환 여부 등)을 점검하였다.
-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, 점검결과 병원 내 무선설비는 정상 운용, 전자과 강도는 1등급으로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- 또한 병원 내 비상발전기, 전기설비 적외선 열화상 점검 등은 기술기준에 적합하여, 정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□ KCA 정한근 원장은 “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힘쓰는 응급의료센터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”며 “이번 전파·전기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○ 한편, 전파·전기 안전점검은 '19년 충남대병원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'20년 KESCO 업무협약 체결 및 안전점검 등을 거쳤으며, '21년 전국 확대시행 예정이다.

[사진] 충남대병원 전파·전기 안전점검 서비스 시행 사진

